한국 근현대사 빈칸 예상 문제

**<9주차>**

1. 프러시아가 ‘nation’에 종족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이후 동양권에서는 (a)으로 번역.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a)이라는 말이 (b)을 대체. 국가에 충성하는 주체를 (b)라고 한다.
2. 개혁운동가들이 지향한 (A)는 왕조국가가 극복된 모습으로, 국내적으로는 ( ), 대외적으로는 ( )이다. 또한 (A)는 반드시 (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고종의 (B)는 ( )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왕실이 주도하는 (A)를 추구하였다. 궁궐 내의 특별 기구인 ( )을 설치하였다.
4. (B)는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 ), 무력도발을 노리는 ( ), ( ) 세력과 양반 유생 그리고 농민항쟁에 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못했다. 또한 (B)는 국가기구의 ( )라는 근대국가 이행의 과제를 역행한다.
5. 갑오개혁기의 국가체제는 “청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 )의 기초를 확실히 건설한다.”는 홍범 14조의 내용에 기반했다. 또한 왕권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 )하는 균질적 국민 형상을 지향하여 ( ), ( ), ( )을 하였다. 하지만, ( )의 압력에 의해 ( ) 세력의 입지기반이 굳건하지 못했다.
6. 고종은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인 ( )을 수립하였고 ( )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C)에서는 전제군주제의 ( )을 하였다. 황제권 보호를 위해 국가 기구를 이원화 하여 ( )-군부, ( )-경무청, ( )-예식원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공공적 성격은 약해지고 황제가 국가기구를 ( )했다.
7. 황제권 상징화 작업으로는 ( ), ( ), ( ) 등이 있다.
8. 황제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인 ( )의 강화로 ( ) 만들기를 하였다.
9. (C)와 일본의 제국헌법의 차이점은 ( )의 규정 유무이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은 자유민권 운동 시행 기간 차이에 있다.
10. 황제권과 독립협회는 국가권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각각 ( )중심, (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둘다 왕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11. ( ) 이후 갑오개혁/독립협회 주도층이 국민국가를 구상하였고 이때 (a) 구상이 전개되었다. (a)는 ( ), ( ), ( )에 따라 구상되었다.

**<10주차>**

1. 조선왕조의 법질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 ) 법치주의였고, 근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 )는 보편적 법치였다.
2. 근대화에 따라 야만적인 폭력은 배제되었지만, 폭력을 통제하는 동시에 ( )하였고, 준법의 ( )가 되었다.
3. 근대국가가 법치국가가 되면서 근대 사회의 ( )와 (a) 공동체가 되었고, (a)에 기반한 통치를 위해 ( )적인 기구가 존재했다. 이는 사회의 ( )을 해결하며, 그들의 ( )를 조정하는 힘을 소유한다.
4. 근대국가는 ( )의 관념에서 ‘국가의 통일’, ‘집중적 권한의 수립’, ‘국민대표의 원리’의 힘이 있고, ( )의 관념에서 ‘인권의 확립’과 ‘권력 분립의 원리’의 힘이 있다. 하지만 양자의 모순적 요소가 있는데 이를 일관하는 것으로써 ( )이 강조된다.
5. 조선시대 법은 대체로 ( )이었다.
6. (A)이후 사법제도의 근대화로 재판과 형벌제도의 근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 )설치, ( )도입, ( )폐지, ( )구분한 ( ), ( )도입이 시행됐다.
7. 대한제국기에는 형량이 강화되고 기존 형법 체제와 조항 상당 부분 유지된 ( )이 개정되었다. 또한, 원남재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방관이 주재하는 법정인 (B)이 잔존했다.
8. 개항기 감옥과 (A) 이후 감옥의 차이는 사법제도 변화 인식으로 ( )와 ( )가 뒤섞였다. 하지만, 서울에 한해서였다.
9. 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는 민/형사 구분을 위한 ( ),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위한 ( )이 있었다.
10. 태형제도, 경찰서장의 범죄 즉결권, 경찰기관에 의한 민사분쟁 조정 제도는 ( )에 따라 실행되었다. 또한 ( )에 따라 경찰이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1925년에는 소송을 줄이기 위한 식민지형 경찰 사법인 ( )이 시행되었다. 이를 법치국시대가 아니라 ( )라 부르기도 하였다.

**<11주차>**

1. (A) 혁명은 이전의 어떤 혁명보다 더 심원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과학, 권력,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2. ( )는 위생, 의료 관련 물품, 표본 등을 전시하여 반세기 세계전염병의학사의 발전을 응축해 놓았다.
3. ( )은 (A) 등장 이후 등장한 통제기구로 식수위생 관리, 분뇨 등 오예물 관리, 급성전염병 관리, 만생 전염병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4. (A)이 등장하고 조선총독부의 ( )에 따라 새로운 범죄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민의 통치의 근거가 된다. 이로 인해 전염병에 걸려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빈번했다.
5. ( )은 근대성과 식민주의 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이었고, 식민지민의 일상을 규율했다. 직접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교차했다.
6. ( )은 식민지배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였으며, 이를 ( )의 사명이라 칭했다.
7. 병에 걸린 자들이 격리되었던 ( )은 시설, 규모, 수준 등의 문제가 많았다.
8. ( )를 통해 보균자를 가려냈었는데, 이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9. ( )를 통해 집을 검사하였고, 이때 집에 먼지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구타 당하기도 하였다.
10. 보균자에 대해 포승을 사용하고 죄인같이 대우하여 납치하는 등의 일이 ( )에 의해 일어났다.

**<12주차>**

1. (A)에서의 세균설에 대한 내용은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진을 거제할 것, 수족지갑은 삭히 삭거할 것 등의 내용이 있었다.
2. 조선총독부의 (A) 정책에는 (A)을 시술하는 (a)를 ( )이라고 부르고 이 규칙이 발포될 때 개업면허를 받은 사람들 이외에 추후에는 개업 면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이 정책에는 (a) 제도의 단계적 폐지, (A)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저열한 것으로 규정, ( )의 존재는 인정 의 내용도 있었다.
3. 조선총독부의 (A) 정책에는 (B) 연구 시작도 있었는데 이는 서양의학의 인프라가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과 서양에서도 약재에 관심 증가 때문이었다.
4. ( ) 이후 (B) 활용 정책 강화하여 약재가 거의 중국산이라는 점에 약재 생산을 촉려하는 등 한약부흥운동에 큰 관심이 생겼다.
5. (A)의 근대성/과학성 논쟁은 총 ( )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참여한 자는 (C), (D), (E), (F)이 있다.
6. (C)는 학회 창설, (A) 용어의 현대화, 연구소 및 의학 교육기관 설치, 홍보를 위한 잡지 발간 등을 하며 (A) 부흥을 위해 힘썼다.
7. (D)는 (C)를 의학도 자연과학의 일부이며, 한방이니 양방이니 하는 두 개의 의술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의술’만 존재한다며 비판했다. 이후에도 (F)에 대한 의견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8. (E)는 서양 의학의 한계 때문에 한방 부흥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재 구하기 힘든점을 보완한다면 동양의학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9. (F)는 2단계를 연 인물로 (A)도 ( ) 애용 시대, ( ) 찬상 시대, ( ) 병용 시대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13-14주차>**

1. 유관순은 ( ) 출생, ( )의 학생이다. 고향인 ( )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검거되었다. 이후 ( )에서 옥사하였다.
2. (A)은 식민지인을 민족적 주체, 정치적 주체로 표상하고, 각 사회/정치세력의 ( )을 표출한다. 이에 ( )을 선점한다.
3. 국선도-동학-천도교로 이어지는 ( ), 개화파-독립협회로 이어지는 ( ). 즉, (A)의 해석 방식이 다르다.
4. 유관순의 기록은 거의 없었으면 유일한 기록은 한미 신문인 ( )에 있는 것 뿐이었다. 여기에는 유관순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5. 유관순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 인물은 (B)이다.
6. 박인덕과 신봉조는 친일 인물로 해방 이후 자신들의 과거를 변명하고 새로운 도적적 권위를 부여할 표상으로 유관순을 내세운다. ( )라는 일제때 유관순보다 더 유명한 대표적인물이 있었지만, 유관순은 ( )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것으로 보고 유관순을 내세우게 된다.
7. 유관순 열사 ( )는 친일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기념관의 건립, 도서 출판, 국민 교육, 영화화, 녹화운동 전개를 추진했다.
8. 전영택의 유관순 전에는 ( )적 느낌이 있으며, 유관순은 청년들에게 ( )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였다.
9. 영화 ‘유관순’은 (B)와 유관순을 동일시하는 장면, 유관순의 ( )적 순교의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 등이 있으며 이는 ( )와 ( ) 정신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형무소에서 복역하여 행적에 흠 잡을 게 없던 ( )이 제작하였다.